

# 매혹의 성, 오카야마성 ~천하인에 버금가는 풍격~

## 제1장 프롤로그



오카야마 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사히 강을 등지고 검고 늠름하게 서 있는 천수, 정말 아름답지요. 오늘은 이 드론이 당신의 '눈'이 되어 오카야마성 투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붕으로 가까이 가볼까요.

복잡하게 겹겹이 쌓여 독특한 실루엣을 이루고 있네요. 겹겹이 쌓인 지붕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은 일본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천수는 최근에 복원된 것으로, 센고쿠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타임캡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약 430년 전에 만들어진 천수 본래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하지 않나요? 사실 이 투어에서는 시공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수가 세워진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의식을 드론에 맡기고…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로 타임슬립합니다!



## 제2장 권위의 상징인 천수

때는 1597년. 저길 봐 주세요. 은은한 빛을 받아 천수의 금빛과 흑빛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검은 벽에는 옷칠이 되어 있어 마치 '칠흑의 갑옷'을 두른 듯합니다. 지붕을 장식하는 '금박 기와'는 당시의 최고 격식을 의미합니다. 성주 우키타 히데이에는 도요토미 정권의 오대로가 됩니다. 히데요시의 총애를 받아 입신출세했기에 허락된 영광이었습니



천수의 기반을 주목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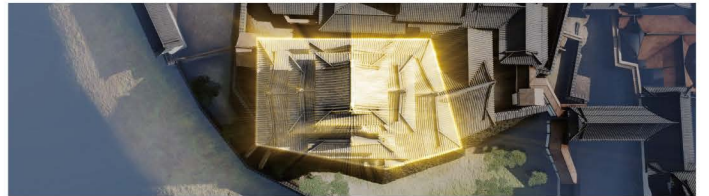
언뜻 보면 평범한 돌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돌담 중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돌담을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감히 올라갈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성주의 힘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형태입니다!

기단의 평면은 매우 특이한 부등변 오각형입니다.



이는 오다 노부나가와 아즈치 성 계보를 잇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즈치 성은 서양 건축물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진 성입니다. 아주 복잡한 설계에서 비롯된 성 건축의 미학이 오카야마 성에도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시선으로 봐도 복잡한 구조의 천수는 보는 각도에 따라 표정이 바뀌는 유일무이한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 제3장 대대로 이어져 온 성시의 확장과 발전

그런데 당신은 이 지역의 뿌리인 '오카야마'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바로 이 천수 아래에 있습니다! 마을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러 가 봅시다.

먼저 우키타 나오이에와 히데이에 부자는 아사히 강의 물줄기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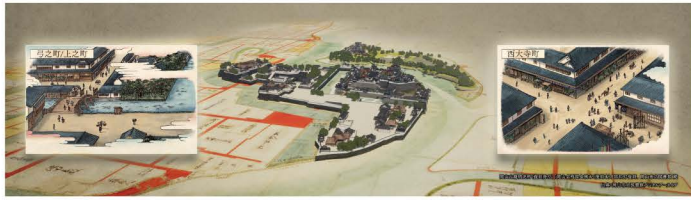
사이고쿠 가도의 경로를 변경하고, 교바시 다리를 세우고,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성 아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흘러 1700년경. 이케다 쓰나마사의 시대에는 치수 공사로 토지가 안정되고, 훗날 고라쿠엔이라 불리게 되는 정원 '고코엔'도 정비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카야마의 마을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오카야마의 거리 풍경은 역대 영주들이 이어 온 '오래 번영하는 도시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 제4장 최전성기의 혼마루

다음은 1700년, 이케다 쓰나마사의 시대입니다. 마을이 전성기를 맞이했을 즈음의 혼마루를 들여다봅시다!

세 단으로 나누어진 곡륜 안에 많은 건물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사실, 이 구조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혼마루가 복수의 단으로 나누어진 형식은 놀랍게도 노부나가의 아즈치 성, 히데요시의 오오사카 성의 혼마루와 같은 형식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카야마 성의 천하인급 풍격을 볼 수 있습니다. 메야스바시 다리 너머, 정면 안쪽에는 오난도 야구라, 왼쪽에는 우치게바문과 다이코 야구라가 보이네요.

메야스바시 다리 너머, 정면 안쪽에는 오난도 야구라, 왼쪽에는 우치게바문과 다이코 야구라가 보이네요. 센고쿠 시대부터 지켜온 구조가 먼저 우리를 맞이해 줍니다.

여기서부터는 가신이 된 기분으로 혼마루로 들어가 봅시다. 문을 지나면 거대한 가가미이시라 불리는 거석이 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야구라문을 보면, 살짝 열린 들창의 안쪽으로 보이는 것은 어둠뿐...



화살인가, 총인가..... 언제 공격당해도 이상할 것 없는, 센고쿠 시대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네요.

번소 앞을 지나 걸어가다 보면 오난도 야구라(망루)가 정면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야구라'라기 보다, 제2의 천수라고 불러도 될 만큼 거대합니다.



야구라 안에는 번의 서류와 보물이 가득합니다. 화재가 나면, 닌자가 그걸 다 운반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왠지 두근두근 긴장되지 않나요? 안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흰 벽의 야구라가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검은 벽과 흰 벽의 색은 축조된 시대가 다름을 의미합니다. 크게 '우키타의 흑(黑)', '이케다의 백(白)' 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대비가 오카야마 성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간 단으로 가는 계단 앞에는 주군을 기다리는 신하들의 대기실인 '도모코시카케'가 있습니다.

무가 사회는 매우 엄격한 세계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허락된 무사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여기에 앉아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기실은 현재 복원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한 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택받은 소수의 가신들은 이 앞의 오모테쇼인이라는 어전으로 향합니다.

#### '문을 열어라!'

자, 여러분도 함께 문 안쪽으로 들어가시죠. 오모테쇼인은 수백 명이 입장 가능한 거대한 규모의 의식 공간입니다. 크고 작은 방이 60여 개가 있으며 많은 가신이 각각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월에는 큰 객실에서 연시 행사도 행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설날에는 번주가 가신들로부터 새해 인사를 받는 의식이 있었고, 이튿날에는 가신들과 함께 학 고기로 만든 맑은장국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큰 의식 행사가 며칠 동안 거행되었습니다. 쓰나마사는 노(가무극)를 좋아하여 안쪽에는 노 전용 무대도 있었습니다. 무대는 결국 해체되었지만, 없어진 게 아니라 고라쿠엔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혼단도 들여다봅시다. 평소에는 열지 않는 아카즈노몬이지만 이번만은 특별하게 이곳을 지나서 혼단으로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보면 번주와 가족이 살았던 혼단 어전이 보입니다.



오른쪽의 길쭉한 건물은 일하는 여성들이 살았던 나가쓰보네입니다. 에도 성의 오오쿠 같은 곳이죠. 왼쪽 안에 있는 번주의 방까지 여성들이 밤마다 드나들었겠죠. 쓰나마사는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어전에서는 분명 **'도련님, 복도에서 뛰시면 안 돼요!'** ……하는 목소리가 자주 울려 퍼졌을 겁니다. 좀 전에 보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의식 공간과 달리, 일상의 삶이 숨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붕 너머로 보이는 우키타 히데이에의 검은 천수. 혼마루를 돌아 다시 보면, 성의 상징으로서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시점을 바꿔 이케다 가문을 상징하는 흰 쓰키미 야구라를 살펴봅시다. 우치코미하기'라고 불리는, 가지런하게 쌓인 돌담이 받치고 있어 웅장하고 장엄합니다. 토담 바로 밑에 있는 작은 구멍은 '가사이시 총안'이라 불리는 총을 쏘기 위한 사격 구멍입니다.



당시 최신 고도 기술로 만들어진 방어 시설로, 적을 요격했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란과 회연이 있는 품격 높은 우아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쓰키미 야구라를 지은 이케다 다다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혈통을 잇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새롭게 야구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2층에서는 오모테쇼인 너머로 천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처럼이니 한번 들어가 봅시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여기서 천수와 달을 바라보며 작은 연회가 열리기도 했었죠. '전쟁'을 대비하는 자세와 우아한 '평화'의 모습. 이 두 얼굴이 공존했던 '화전 양면', 이것이 쓰키미 야구라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밤도 깊었으니, 사람도 성도 잠에 듭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카몬에서 아침을 맞이한 혼마루를 들여다봅시다. 로카몬에서 위아래 두 갈래로 뻗어 있는 통로는 번주 전용 통로였습니다. 번주가 거처하는 혼단 어전, 정무가 이루어졌던 오모테쇼인, 휴식을 하기 위한 하나바타케 어전이 로카몬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공중회랑'. 이건 전국에서도 희귀한 구조입니다. 선조가 오다 가문의 가신이고 노부나가를 존경했던 만큼 이곳도 아즈치 성을 뿌리로 한 구조인 듯합니다. 천하인의 품격은 '공중회랑의 계보'에도 이어져 있군요. 귀를 기울여 보세요.

번주가 혼단 어전에서 오모테쇼인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시간대가 되면 가신과 마을 사람들의 일상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카야마 성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 제5장 에필로그

우키타 나오이에, 히데이에를 시작으로 고바야카와, 이케다와 역대 성주들에 의해 시대마다 조금씩 손이 더해지며 발전해 온 오카야마 성.

변해가는 시대 속에 이어져 온 것들을 지키며, 센고쿠 시대의 타임캡슐은 앞으로도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여정은 여기까지!

현대로 돌아가면, 다음에는 꼭 당신 자신의 발로 이 역사의 흔적을 찾아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